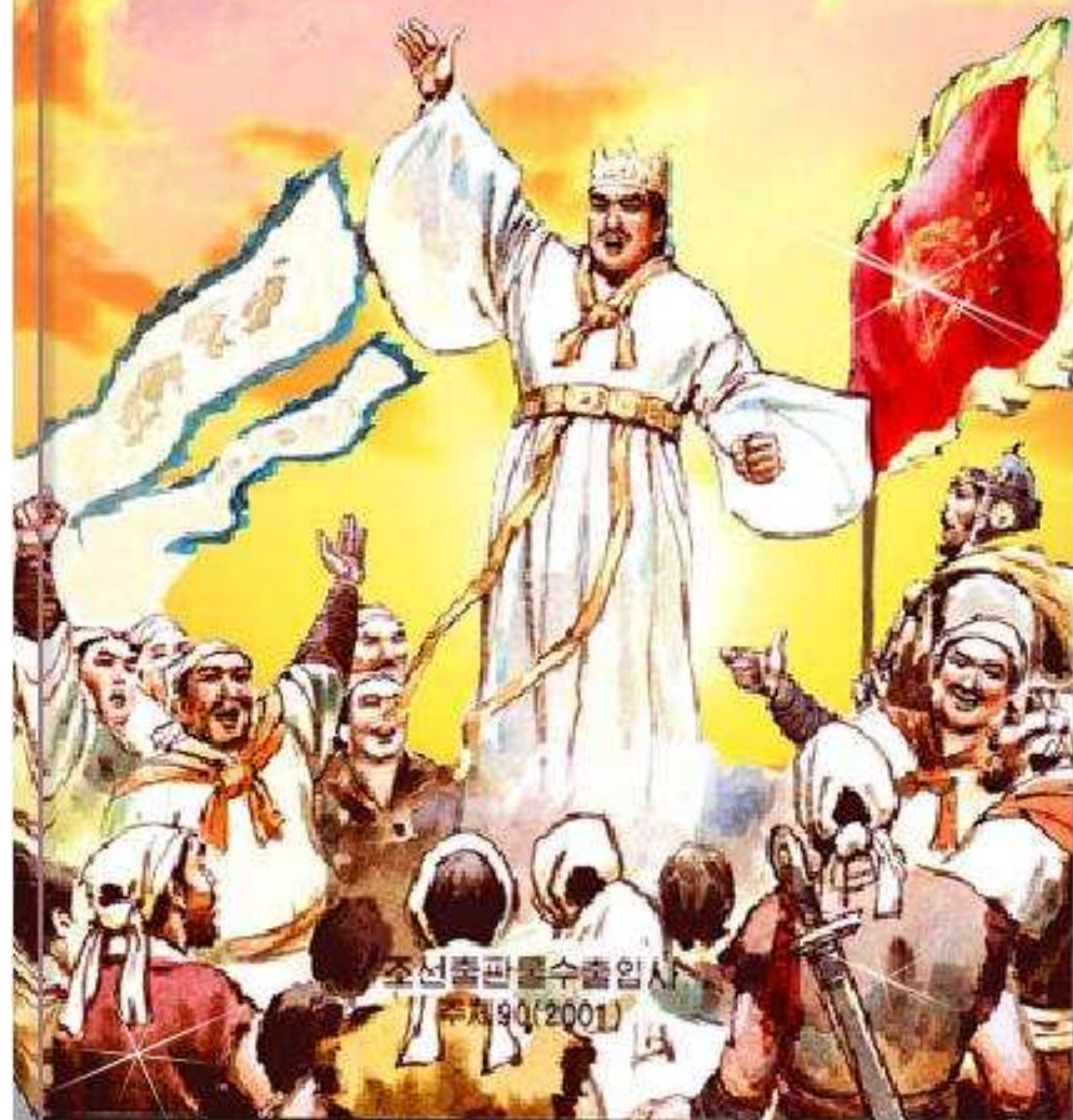


그림으로 본 조선력사(고조선편2) 2권

이 땅에 첫 아침이



조선출판물수출입사
주최 90(2001)



지금으로부터 5000 여년전, 우리 나라의 평양지방을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에서 여러 씨족들과 종족들이 살고있었는데 그중에는 박달종족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박이라는 글자는 밝다는 뜻이고 달은 박달종족이 사는 고장을 의미했습니다. 이 박달종족의 추장은 환인이었습니다.



환인은 용감하고 무예에도 능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안해와 갓 태어난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가 바르고 용감한 환인은 박달종족을 잘 다스려나갔습니다. 활을 잘 쏘는 그는 사냥경기때마다 짐승을 제일 많이 잡곤하였습니다.



환인은 사냥나갈 때마다 안해가 말리는것도 듣지 않고 6 살난 어린 아들을 말에 태워 같이 데리고 가곤 하였습니다.



어느날 환인은 환웅을 사냥터에 데리고 가자 자그마하게 만든 활을 주고 10 보
앞에 있는 붓나무의 잎들을 하나씩 쏘아떨구게 하였습니다.



환인은 환웅이 작은 손으로 활을 힘껏 당겼다가 나무잎들을 쏘아떨구는것을
한참 보다가 말을 타고 숲속으로 떠났습니다.



환인은 짐승들을 쫓아 강변을 달리며 화살을 날리다가 갑자기 멀리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바람에 깜짝 놀라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려갔습니다.



환인이 말을 달려가보니 놀랍게도 환웅이 자그마한 활의 시위를 잔뜩 당겨 방금 달려들려는 호랑이의 눈을 겨누고있었습니다.



환인은 가슴이 섬찍하여 급히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환웅의 활에서도
조그마한 화살이 날아가 각각 호랑이의 두눈에 박혔습니다.



환인은 아들의 담대한 용기에 감탄하여 그를 얼싸안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환인은 안해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웅은 별로 뽐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안해는 아들을 품에 그러안고 환인에게 다시는 아들을 사냥에
데리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였습니다.



환웅은 어머니가 말리는것도 듣지 않고 아버지가 사냥을 나갈 때마다 따라가 짐승들을 쏘아잡곤 하였습니다.



어느덧 환웅은 뽕뽕한 젊은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종족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앞장에 서서 적들을 죽이곤 하였습니다.



어느해 겨울 북방의 사나운 종족이 습격해왔습니다. 환인은 종족두령들을 불러 군사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환웅은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환인은 그에게 군대를 맡겼습니다. 환웅은 쳐들어온 적들을 물리치고 그 소굴까지 소탕해버렸습니다.



환웅이 말을 타고 씩씩하게 돌아오자 환인은 늙은 안해와 함께 마을어귀까지
나가 아들을 맞이하였습니다.



환인은 그때부터 아들을 앞에 내세워 종족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환웅은 자기 종족사람들이 서로 다툴 때마다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아본 다음
공정하게 판결하곤 하였습니다.



박달종족사람들은 용감하고 총명하며 대가 바른 환웅을 존경하면서 그를 추장의
대를 이을 젊은 추장이라고 떠받들었습니다.



환웅은 종족을 지키자면 우선 무예에 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농사철이 끝나면 말을 탈수 있는 남자들을 다 동원하여 활쏘기, 칼쓰기 등 무예를 닦았습니다.



환웅이 아버지의 오른팔이 되어 종족을 다스리게 되자 박달종족은 차츰 강해졌습니다. 어떤 작은 종족의 추장들은 박달종족에 통합되려고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박달종족은 다른 종족들을 받아들이면서 점차 남쪽으로 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환웅은 다른 종족들과 싸울 때마다 많은 포로들을 얻어 공로를 세운 종족의 두령
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종족의 두령들은 노예들이 불어나자 농사를 지을 더 많은 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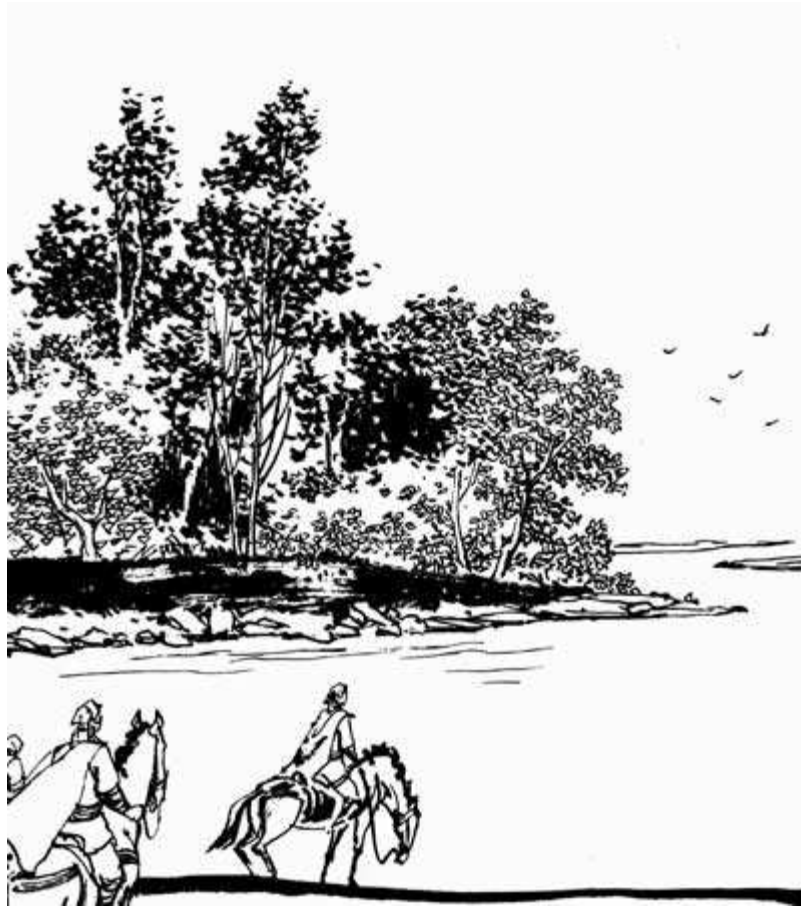
환웅은 자기들이 차지하고있는 지역만으로는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다는것을 알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가보기로 하였습니다.



환웅은 농사가 끝나자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용맹한 부하를 몇명 데리고 강을 건너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쪽에 용맹한 범종족과 곰종족이 살고있다는 소식을 들은 환웅은 우선 그 종족의 추장들을 만나볼 생각이였습니다.



환웅은 며칠동안 행군하여 그들이 사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잔잔한 산봉우리들이 펼쳐진 넓은 벌로 흘러가는 강과 그 주변의 경치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환웅은 강가에 이르자 군사들을 멈춰세우고 말들에게 물을 먹이면서 잠시 휴식하였습니다.



갑자기 맞은편 강기슭에서 뿔나팔소리가 울렸습니다. 환웅은 벌떡 일어나 손에
검을 잡고 강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강건너편에서는 이상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풀잎과 꽃으로 장식한 큰 공을
끌고나와 빙 둘러싸고 춤을 추고있었습니다.



환웅은 그들이 용감한 곰종족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곰종족들은 매해 가을마다
곰에게 제사를 지내곤 하였습니다.



환웅은 제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있다가 부하들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혼자 말을 타고 강을 건너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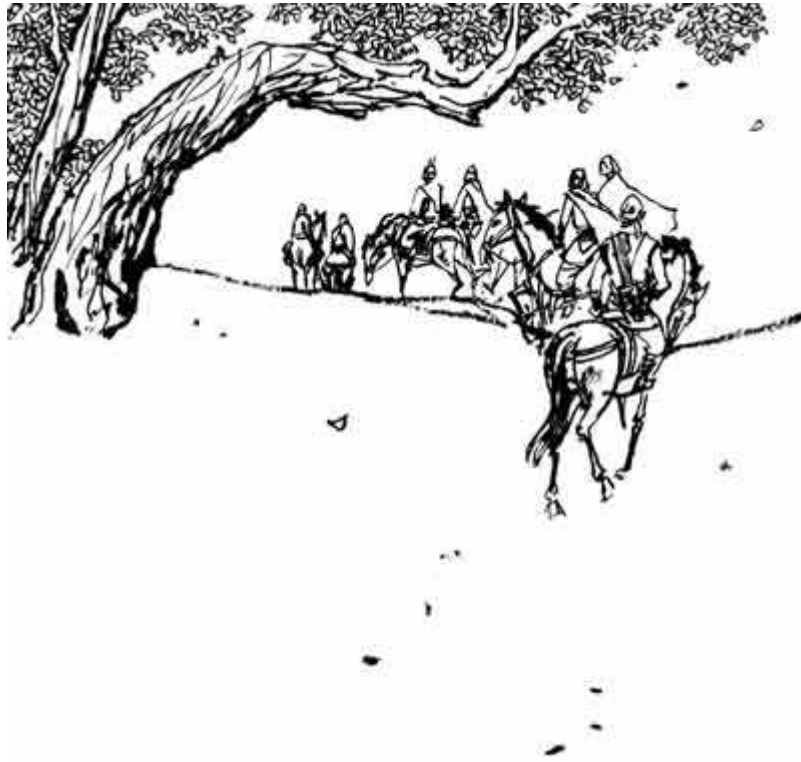
부하들은 혹시 그가 잘못될가봐 말렸지만 환웅은 무기를 다 놔둔채 맨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가 건너오는것을 본 공종족들은 모두 강가로 다가가 활을 겨누었습니다.



환웅은 침착한 태도로 강을 건느자 그들앞에 다가가서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그들속에서 모자에 새깃을 두개 꽂은 사람이 앞에 나서더니 그에게 누구인가고 물었습니다. 환웅이 박달종족 추장의 아들이라는것을 안 곰종족 추장은 몹시 기뻐 하였습니다.



환웅은 부하들에게 신호하여 강을 건너오게 한 다음 곰종족의 추장을 따라 갔습니다.



추장네 집은 울타리까지 둘러친 큰 집이었습니다. 환웅이 추장을 따라 그의 집앞에 이르자 추장의 안해와 딸이 마중나왔습니다.